

회의 일시 2026. 6. 5. (금) 10:00
 회의 장소 온라인 Google Meet
 회 차 58_임시03
 서 기 자연과학캠퍼스 인사운영국장 한예슬

인사캠 총학생회		자과캠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0	부총학생회장 0	총학생회장 0	부총학생회장 결석
유학대학 0	문과대학 0	자연과학대학 0	정보통신대학 0
법과대학 X	사회과학대학 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	공과대학 0
경제대학 0	경영대학 결석	건축학과 0	약학대학 0
사범대학 0	예술대학 0	생명공학대학 0	스포츠과학대학 0
글로벌리더학부 0	글로벌융합학부 무단결석	의과대학 0	성균융합원 0
동아리연합회 0		동아리연합회 0	

전체 단위 수: 25 (정족수: 인사캠 8단위 | 자과캠 9단위) / 출석 단위 수: 22

논의 및 심의 안건 가. 현 시국에 대한 성명문 공개 의결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논의 및 심의 안건 가의 시작을 선포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성명문 수정본을 확인하였음을 전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 자과캠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성명문의 전체적인 기조는 적절하다고 발언한다.
 - 다만 마지막 문단의 “민족성군관 2만 5천 심산의 아들딸이여”라는 표현이, 성군관대학교 출신들에게 전달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해당 문구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성명문을 작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 또한 성명문 자체가 학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규탄이지만, 총학생회와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한다.
- 글로벌리더학부 회장이 해당 우려는 문장이 “아들딸이여”로 끝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다.
 - 문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참을 호소하거나 함께하자는 맥락이 조금 더 추가되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아들딸이여” 대신 “아들딸에게”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 건축학과 부회장이 “에게”보다는 “이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다.
 - 또한 해당 게시글이 어떤 방식과 경로로 게시되는지 설명을 요청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성명문은 인사캠 총학생회 및 자과캠 총학생회 소통창구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 각 단위에 공동 작업자를 요청하지는 않을 예정이나, 이미지 하단에는 참여 단위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 또한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를 고려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다.
- 건축학과 부회장이 해당 게시 방식이라면 “에게”보다는 기존의 “이여”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발언한다.
- 문과대학 회장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하 세 가지 요구사항의 순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현재 요구사항은 투명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순서를 고려하면 투명한 조사,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순서가 더 자연스럽다고 제안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기존에는 실질적 조사, 대응, 사과의 흐름으로 배치하였다고 설명한다.
 - 다만 제안된 순서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순서로 재배치하겠다고 답변한다.
 - 별다른 이견이 없어 요구사항의 순서를 조사, 사과 및 후속 조치, 대책 마련 순서로 재배치하기로 한다.
- 글로벌리더학부 회장이 첫 번째 문단의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이라는 표현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족”보다는 “태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해당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다.
- 예술대학 회장이 마지막 문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쇄신하라”는 표현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 “쇄신”이라는 단어가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성명문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다.
 - 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나서라”와 같이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신뢰를 회복하라”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 글로벌리더학부 회장이 “쇄신하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상 전체적인 조직 변화를 촉구한다고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며, 기존 표현을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발언한다.
- 문과대학 회장이 “준비 태만”이라는 표현에 대해, ‘태만’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는 뜻이 강하므로 고의성이나 게으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고 발언한다.
 - 따라서 해당 표현이 성명문에서 의도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또한 “쇄신”은 정치적 맥락에서 낡은 관습을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번 성명문에서는 문제 해결과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예술대학 회장의 의견처럼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첫 번째 문단의 표현은 “준비 부족”으로 유지하겠다고 정리한다.
 - 마지막 문장은 “쇄신하라” 대신 “신뢰를 회복하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한다.
- 글로벌리더학부 회장이 “신뢰를 회복하라”는 표현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지막 문장이 가지는 입장과 요구의 의미가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고 발언한다.
 - 따라서 더 적절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쇄신” 대신 “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 예술대학 회장이 성명문은 대중에게 특정 단체의 의견을 밝히는 글이므로, 단어 하나로 압축하기보다 의미를 풀어서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발언한다.
 - “각성”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나서라”와 같이 정확한 주제와 행동 방향을 드러내는 문장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 글로벌리더학부 회장이 성명문의 목적은 결과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요구하는 데 있다고 발언한다.
 - 따라서 “신뢰를 회복하라”처럼 결과 중심의 표현보다는 앞으로의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표현을 구체화할 경우 직관적으로 와닿는 장점은 있으나,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한다.
- 자과캠 총학생회장이 마지막 문장은 성명문에서 가장 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다.
 - 이미 앞선 문단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문장까지 풀어쓰기보다는 강조와 결의가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 “쇄신하라”는 표현은 다소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성하라”가 가장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 첫 번째 문단의 “준비 부족”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의 순서는



“조사, 사과 및 후속 조치, 대책 마련” 순서로 재배치하며, 마지막 문장은 “쇄신하라” 대신 “책임 있는 자세로 각성하라”로 수정하기로 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해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공유한 뒤, 성명문을 연석중앙운영위원회 명의로 업로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의결은 각 캠퍼스 출석 단위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진행되며, 각 단위별 1인만 투표해 달라고 안내한다.
 - 온라인 회의인 관계로 투표는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채팅방에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한다.

안건명	현 시국에 대한 성명문 공개 의결						
표결 내용	현 시국에 대한 성명문을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석중앙운영위원회 명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표결한다.						
인사캠 총학생회장 이재홍	찬성	인사캠 부총학생회장 허서영	찬성	유학대학 이세은 · 김지혜	찬성	문과대학 유시은 · 강노은	찬성
사회과학대학 이서진 · 장재훈	찬성	경제대학 전지현 · 호원준	찬성	경영대학 지수빈 · 안현선	결석	사범대학 이찬형 · 임종하	찬성
예술대학 김예은 · 이다연	찬성	글로벌리더학부 이경민 · 이정인	찬성	글로벌융합학부 김가운 · 백윤우	무단 결석	인사캠 동아리연합회 배하선 · 구동현	찬성
자과캠 총학생회장 이상수	찬성	자과캠 부총학생회장 이승하	결석	자연과학대학 이지연 · 손민지	찬성	정보통신대학 박지훈 · 이나겸	찬성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철주 · 정보라	찬성	공과대학 김도윤 · 김채은	찬성	건축학과 김규희 · 조용우	찬성	약학대학 황태연 · 이수민	찬성
생명공학대학 정은화 · 이서연	찬성	스포츠과학대학 김민기 · 이승준	찬성	의과대학 변승준 · 노호준	찬성	성균융합원 구휴준 · 김환식	찬성
자과캠 동아리연합회 박지원 · 황수현	찬성						
25단위 중 22단위 출석							

- 출석 단위 22단위 전원 찬성으로 해당 성명문을 수정 사항 반영 후 업로드하기로 의결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수정본이 완성되는 대로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공유할 예정이며, 업로드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한다.
 - 수정본이 빠르게 완성될 경우 11시 업로드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참고 사항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들도 관련 성명문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공유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추가 상정 안건이 있는지 묻는다.
 - 추가 의견 및 추가 상정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다.
-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논의 및 심의 안건 가의 종결을 선포한다.

6월 5일 10시 33분 인사캠 총학생회장이 임시 제3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한다.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총학생회장

이재홍

부총학생회장

최서연

유학대학

이시은

문과대학

유시은

사회과학대학

이서진

경제대학

전지현

경영대학

지수빈

사범대학

이찬형

예술대학

김예은

글로벌리더학부

이경민

글로벌융합학부

김각훈

동아리연합회

내재현

< 자연과학캠퍼스 >

총학생회장	이상우
부총학생회장	이응하
자연과학대학	이지연
정보통신대학	박지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형주
공과대학	김도원
건축학과	김규희
약학대학	황해연
생명공학대학	정은화
스포츠과학대학	김민기
의과대학	변영진
성균융합원	유휴준
동아리연합회	박지원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5일

